



사연 있는 집



“아, 너희 집은 참 걱정이 없겠다. 남편도 가정적이고 아이들도 착하고.”

지인이 웃으며 던진 그 말이 잠시 귓가에 맴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남편은 집안일에도 적극적이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아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대체로 순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심이 없을까.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만 살고 있을까. 아니다. 사연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우리 집도 수많은 과도를 거치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면 집안 속사정이 비밀처럼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환하고 평온해 보이던 집에도 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 어떤 집은 부모의 지병으로 달력이 병원 예약과 검사 일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집은 과거의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행복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집은 아이가 오랜 시간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마음과 몸이 지쳐있다. 겉으로는 웃음이 많은 가족도 알고 보면 사춘기 아이와의 날 선 대화로 밤마다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조금씩 와닿게 되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동갑내기인 남편과 나는 큰 싸움은 없는 편이지만 사소한 문제로도 티격태격할 때가 있다.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아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 고집이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다 서로 등을 돌리고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 얼마안 가 다시 마주앉아 밥을 먹으며 화해한다.

아이들도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사춘기라는 벽은 어느 집이나 있다. 문을 세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순간의 적막, “몰라” 라는 짧은 대답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감정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이가 나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 아이가 어느새 웃으며 다가와 안기면, 지난 근심과 불안이 잠시 희미해진다.

나의 이웃사촌이자 절친한 벗은 올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적만을 바라던 시간이 있었다. 다행히 절박한 고비는 넘겼지만 회복은 더디고 지금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안부를 묻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다. 괜찮냐는 질문 하나에도 담긴 무게가 너무 커서, 건네는 쪽도 받는 쪽도 잠시 침묵하게 된다.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여전히 곁에 계시다는 사실과 그 존재 하나만으로 이어지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끈 덕분일 것이다.

부부 사이가 떨어져 고민이라는 집도 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없는 어느 부부와 다를 게 없지만, 집 안에서는 차갑게 등을 돌린 채 대화가 줄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치면 표정은 무거워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싹튼다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함께 사는 건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희미한 애정의 불씨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깨닫게 된다. 우리 집만 불완전한 게 아니구나. 멀리서 볼 땐 반듯하고 단단해 보이는 집도 안으로 들어가면 저마다의 사정고 고민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집이란 결국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일지 모른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다. 어떤 집은 문제를 꼭꼭 숨긴다. 웃음으로 덮어두고, 손님이 오면 아무 일 없는 듯 환하게 맞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삭이며 버틴다. 또 어떤 집은 드러내놓고 산다. 아픈 건 아픈 대로, 힘든 건 힘든 대로 주변과 나누며 풀어낸다. 덕분에 더 많은 위로를 얻지만, 때론 외부의 시선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집은 서로 붙잡으며 천천히 견뎌간다.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때론 울고, 때론 화내며 버티면서도 끝내는 함께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불완전한 속에서도 웃고, 근심 속에서도 밥상을 차리고,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

완벽한 집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순간들이 있다. 마트 세일 때 어렵게 사온 한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때, 그 짧은 호사에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금요일 저녁, 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들어 한 주 동안의 피곤을 씻어내고, 잠시 후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치킨 상자를 사이에 두고 시끌벅적한 이야기가 오간다. 차가운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날의 근심도 조금은 녹아내린다. 반려동물이 재롱을 부리며 다가와 소파 위로 폴짝 올라왔을 때, 피곤에 찌든 얼굴에도 빙그레 미소가 번진다.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누워 코를 고는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 안 공기가 한결 따뜻해진다. 아이가 불쑥 내민 그림 한 장이나, 저녁 밥상 앞에서 건네는 “엄마, 오늘 고마워” 라는 한마디는 하루의 피로를 단숨에 풀어주는 묘약이 된다. 늦은 밤, 온 가족이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동시에 같은 장면에 웃음을 터뜨릴 때면 이 집만의 호흡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집은 문제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사연없는 집 없고 갈등과 걱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불완전함을 덮어주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다. 결국 집을 지켜주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틈틈이 찾아와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작은 순간들의 축적일 것이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문제없는 집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집. 그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가 끝내 지켜내고 싶은 진짜 집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8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Dr. Soung Hoon Cho
DDS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